

배포일시	2010. 8. 25.(수) 11:00 (총 10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대
		전화번호	051-718-0423

9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부산·울산·경남)

- 태풍, 호우 대비 필요 -

□ **9월의 기상특성**

- 9월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음. 국지적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함.
- 평년 9월에 태풍은 5.1개가 생겨 그 중 0.8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라, 매미, 나비” 등의 태풍은 9월에 내습하였음. 태풍에 대비하여 강풍, 호우 등의 대비가 필요함.

□ **9월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집중호우**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여 우리나라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 집중호우를 내리기도 함. 최근 5년간 9월의 일 강수는 2005년 9월 6일 태풍 “나비”가 동해상을 지나면서 울산에서 327.5mm로 가장 많이 왔으며, 1시간 최다강수는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진주에서 58.0mm의 집중호우를 기록했음. 2007년 9월 1일에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거창 137.5mm, 산청 104.5mm의 많은 비가 내렸음.

○ **태풍**

9월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2003년 9월 12일~13일 지나간 “매미(MAEMI)”로 전국적으로 사망·실종 131명, 4조 2,22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 이 태풍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통영에서는 최대순간풍속 43.8m/s를 기록했으며, 집중호우도 동반해 남해에 410.0mm의 일 강수량을 기록했음. 마산항에 해일, 부산항에 대형 크레인 이 무너지는 재해를 초래함.

※ 첨부 : 9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1-718-0423, <http://www.kma.go.kr>

9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2010년 8월 25일 11시 발표

□ 9월의 기상특성

- 9월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음. 국지적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함.
- 평년 9월에 태풍은 5.1개가 생겨 그 중 0.8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라, 매미, 나비” 등의 태풍은 9월에 내습하였음. 태풍에 대비하여 강풍, 호우 등의 대비가 필요함.

□ 9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집중호우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여 우리나라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 집중호우를 내리기도 함. 최근 5년간 9월의 일 강수는 2005년 9월 6일 태풍 “나비”가 동해상을 지나면서 울산에서 327.5mm로 가장 많이 왔으며, 1시간 최다강수는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진주에서 58.0mm의 집중호우를 기록했음. 2007년 9월 1일에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거창 137.5mm, 산청 104.5mm의 많은 비가 내렸음.

※ 9월 지역별 일 강수량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산	2005.09.06	327.5	1969.09.15	315.8	1984.09.03	233.2	1958.09.06	181.8	1969.09.14	179.6
창원	1998.09.30	227.1	1999.09.20	165.7	2003.09.12	157.0	1992.09.24	140.7	1999.09.10	115.7
부산	1984.09.03	246.5	1969.09.14	234.0	1972.09.14	224.7	1933.09.19	203.0	1911.09.07	169.7
통영	1969.09.14	252.4	1973.09.09	174.7	1998.09.30	150.9	2003.09.12	140.5	1981.09.03	117.1
진주	1981.09.03	264.0	2003.09.12	259.5	1998.09.30	201.0	1969.09.14	151.0	1969.09.15	130.7
거창	1998.09.30	210.0	2003.09.12	157.5	1985.09.02	147.5	2007.09.01	135.5	2000.09.14	104.5
합천	1998.09.30	223.5	2003.09.12	186.0	1981.09.03	170.8	2007.09.16	107.0	1991.09.27	106.0
밀양	1998.09.30	195.0	2003.09.12	177.0	1999.09.20	144.0	1984.09.03	142.8	1980.09.11	138.8
산청	1998.09.30	332.5	1981.09.03	251.5	2003.09.12	247.5	1985.09.02	218.7	1992.09.24	189.5
거제	1998.09.30	279.5	1973.09.09	209.9	1981.09.03	193.5	1981.09.24	184.9	1980.09.11	176.7
남해	2003.09.12	410.0	1998.09.30	275.5	1981.09.03	236.4	1981.09.24	192.4	1981.09.02	164.0

○ 태풍

9월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2003년 9월 12일~13일 지나간 “매미(MAEMI)”로 전국적으로 사망·실종 131명, 4조 2,22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 이 태풍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통영에서는 최대순간풍속 43.8m/s를 기록했으며, 집중호우도 동반해 남해에 410.0mm의 일 강수량을 기록했음. 마산항에 해일, 부산항에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는 재해를 초래함.

※ 2000년대 9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연도	태풍이름	영향기간	피해액(단위: 천원)
2000	사오마이(SAOMAI)	9.12~16	146,249,050
2003	매미(MAEMI)	9.12~13	4,222,485,994
2004	송다(SONGDA)	9.6~9.8	1,481,000
2005	나비(NABI)	9.6~9.7	132,504,000
2006	산산(SHANSHAN)	9.17~18	10,928,000
2007	나리(NARI)	9.16~17	159,175,000

※ '00년대 9월 태풍으로 인한 지역별 바람 및 강수량

지점	2000년 “사오마이” (SAOMAI, 12-16일)			2003년 “매미” (MAEMI, 12-13일)			2005년 “나비” (NABI, 6-7일)			2007년 “나리” (NARI, 16-17일)		
	바람(m/s)		강수량 (mm)	바람(m/s)		강수량 (mm)	바람(m/s)		강수량 (mm)	바람(m/s)		강수량 (mm)
	최대	순간		최대	순간		최대	순간		최대	순간	
울산	10.0	18.0	180.2	18.3	33.2	99.1	11.5	24.9	328.0	10.0	18.0	40.5
창원	15.3	28.5	198.2	24.7	38.8	158.0	9.5	18.2	45.0	18.4	27.3	34.8
부산	18.7	32.7	108.9	26.1	42.7	64.0	14.3	26.4	161.5	12.4	21.3	27.0
통영	15.1	24.0	180.5	31.8	43.8	140.5	14.4	24.5	50.5	17.7	28.2	42.5
진주	8.4	17.0	272.0	18.9	31.3	259.6	8.8	17.1	10.0	7.4	15.0	131.0
거창	10.7	15.4	288.5	13.8	27.0	160.5	7.3	12.1	10.0	7.2	12.6	107.5
합천	16.3	21.3	232.5	20.2	31.8	189.0	9.3	17.2	6.5	8.3	13.3	111.0
밀양	21.2	29.8	158.0	17.4	32.4	180.0	7.9	17.2	26.0	6.7	13.1	40.5
산청	10.6	14.2	358.5	15.5	25.5	252.0	8.0	13.6	13.5	6.3	12.3	145.0
거제	14.2	26.2	267.0	13.1	32.0	120.5	7.0	16.1	101.5	10.7	20.5	72.0
남해	13.8	20.1	353.0	15.6	37.2	410.0	6.1	12.1	24.5	10.1	23.6	95.0

※ 태풍 발생 현황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발생수	0.5	0.1	0.4	0.8	1.0	1.7	4.1	5.5	5.1	3.9	2.5	1.3	26.7
	영향수	0.0	0.0	0.0	0.0	0.0	0.3	1.0	1.3	0.8	0.1	0.0	0.0	3.4
2010	발생수 (영향수)	0	0	1	0	0	0	2	2(1)	-	-	-	-	5(1)

※ 붙임 : 9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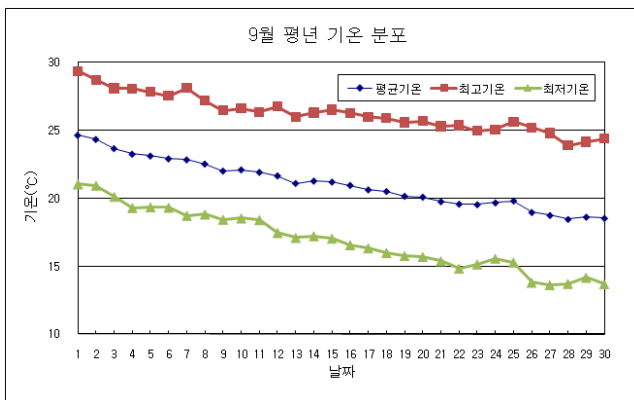
9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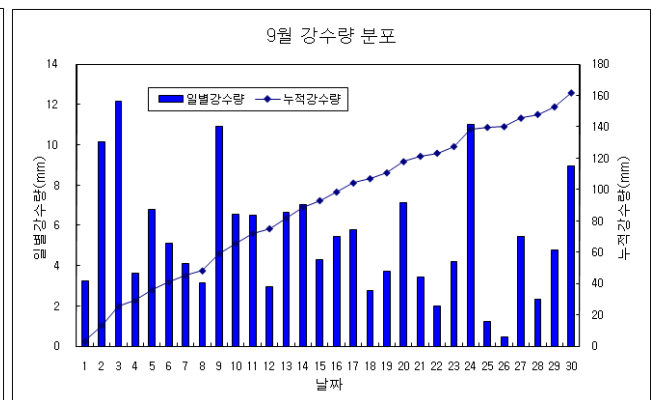
1. 9월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평년)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지 점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평균기온	21.2	22.8	22.1	22.1	20.9	18.8	20.3	20.8	20.0	21.6	21.6
최고기온	25.8	27.0	26.1	26.3	26.5	25.5	26.3	26.8	26.4	26.0	26.4
최저기온	17.4	19.3	19.2	18.9	16.4	13.7	15.5	15.8	15.2	17.3	17.6
강 수 량	165.5	165.3	167.0	134.9	155.9	142.3	144.7	136.6	192.2	183.5	1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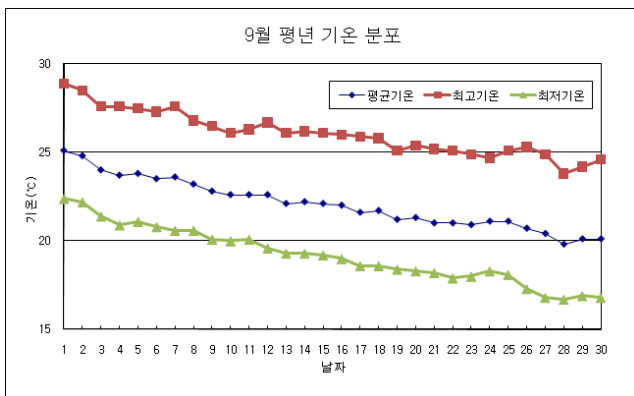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9월 일별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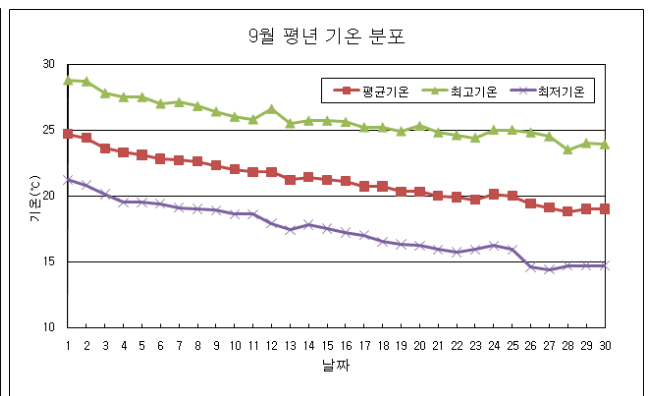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9월 평년 강수량

2.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기온(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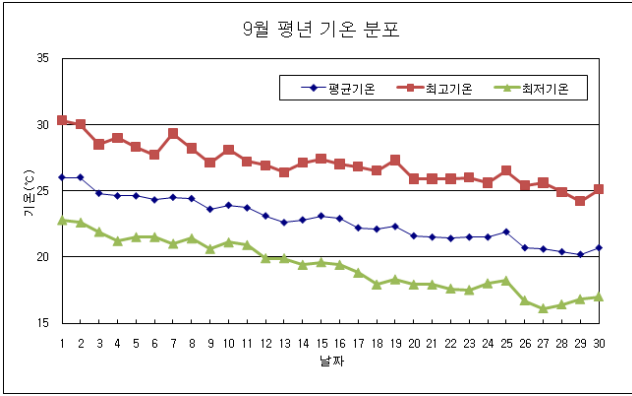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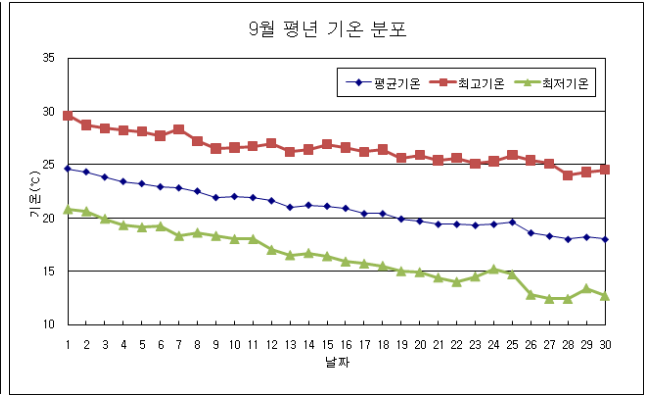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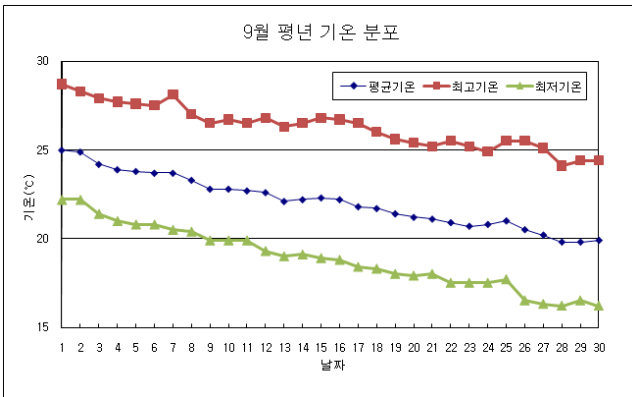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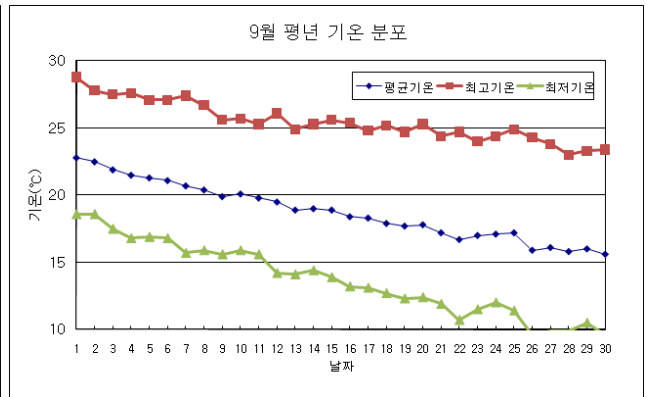
진주



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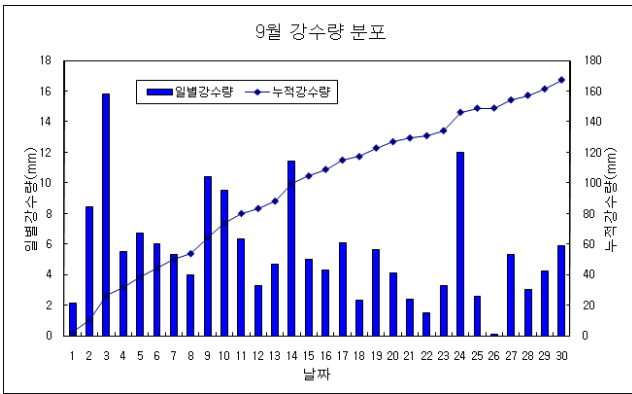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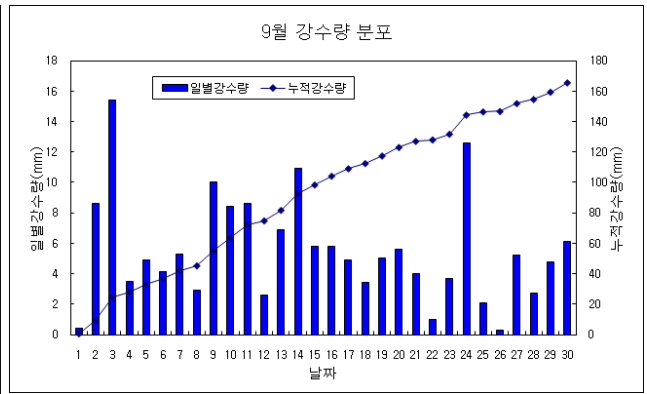


3.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 강수량(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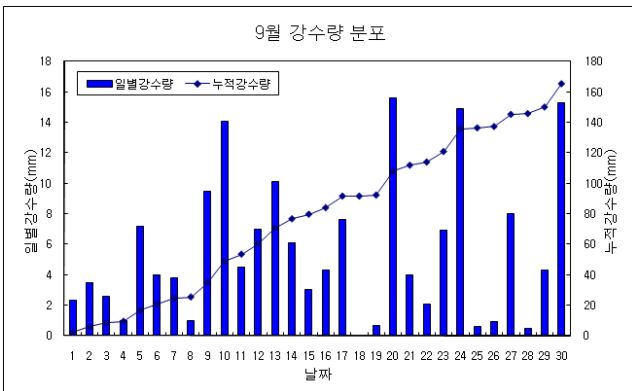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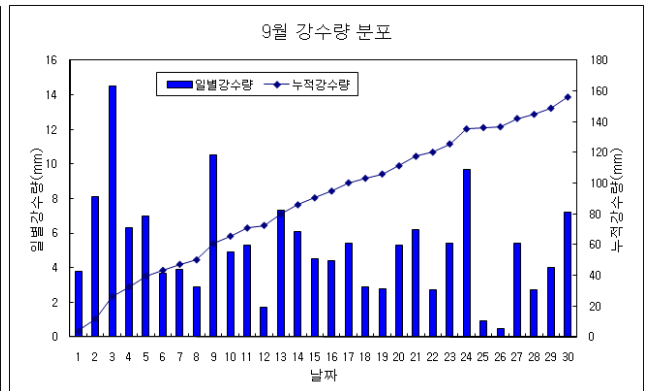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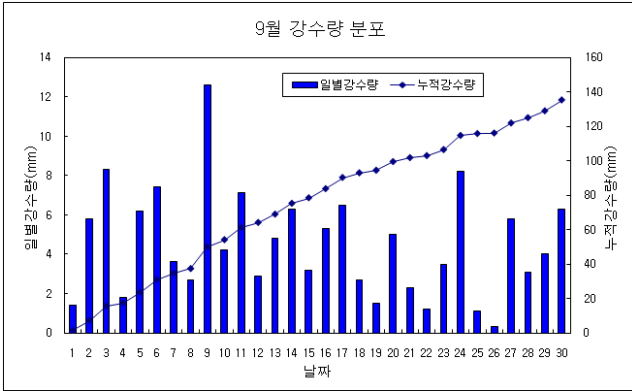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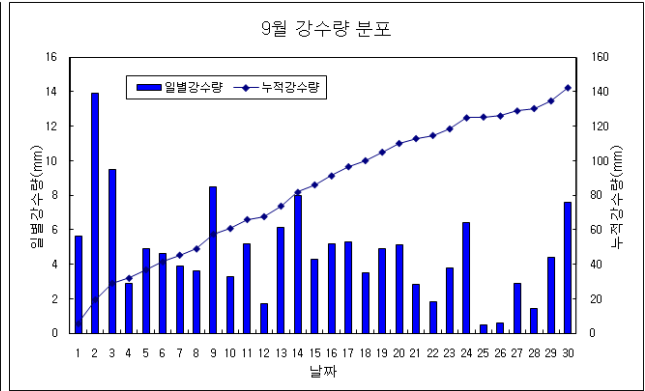
진주



통영



거창



4.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순별 평년값(9월)

평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상순	23.0	23.7	23.1	24.7	23.2	23.8	21.2
중순	20.8	21.9	21.1	22.6	20.8	22.0	18.6
하순	19.0	20.6	19.5	21.1	18.8	20.5	16.5
전체	20.9	22.1	21.2	22.8	20.9	22.1	18.8

최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상순	27.7	27.5	27.4	28.7	27.9	27.6	27.1
중순	26.1	26.0	25.5	26.9	26.4	26.3	25.3
하순	24.8	24.8	24.5	25.5	25.1	25.0	24.0
전체	26.2	26.1	25.8	27.0	26.5	26.3	25.5

최저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상순	19.3	21.0	19.6	21.6	19.2	20.9	16.8
중순	16.6	19.0	17.3	19.2	16.2	18.8	13.6
하순	14.3	17.5	15.3	17.2	13.7	17.0	10.7
전체	16.7	19.2	17.4	19.3	16.4	18.9	13.7

강수량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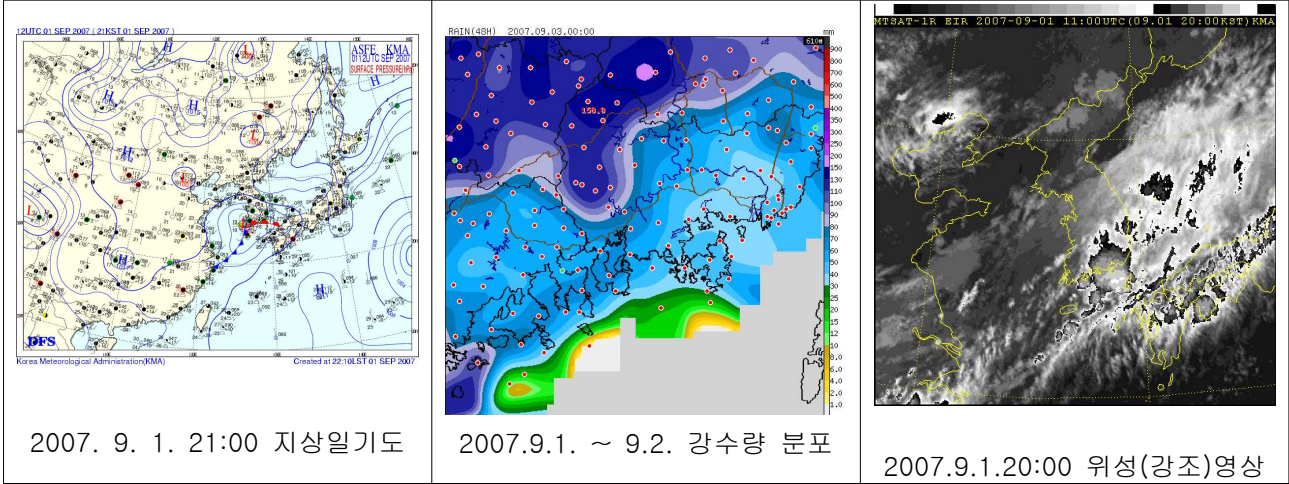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상순	67.3	73.6	63.6	48.9	65.5	54.0	60.9
중순	51.4	53.1	59.4	58.9	45.8	45.3	49.3
하순	42.4	40.3	42.5	57.5	44.6	35.6	32.1
전체	161.1	167.0	165.5	165.3	155.9	134.9	142.3

(평년기간 : 1971 ~ 2000년)

5. 기상재해 사례

○ 집중호우(2007년 9월 1일 ~ 2일)

남부지방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생성되어 거창에는 137.5mm, 산청에는 104.5mm의 비가 내렸으며, 거창은 9월 일 강수량 극값 4위를 기록했음.



○ 2007. 9. 1. ~ 9. 2. 지점별 일 강수량(mm)

지 점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강수량	56.0	42.0	39.5	35.5	74.5	137.5	64.5	42.0	104.5	48.5	89.5

○ 9월 일 최다강수량(mm)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거창	1998.09.30	210	2003.09.12	157.5	1985.09.02	147.5	2007.09.01	135.5	2000.09.14	104.5

○ 집중호우 재해 관련 기사

지리산 등산객 4명 실종

입력시각 : 2007-09-02 00:34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에 올랐던 등산객 4명이 실종돼 산악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지리산국립공원 추성 계곡 부근에서 빗속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한 52살 최 모 씨 등 3명이 119 산악구조대와 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노 모 씨와 박 모 씨 등 다른 등산객 4명은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4명은 오후 3시쯤부터 휴대 전화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입니다.

산악 구조대는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날이 어두워져 수색 작업을 중단했으며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수색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등산객들이 곳곳에서 고립됐습니다.

어제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국립공원 추성계곡 근처에서 순식간에 불어난 물 때문에 등산객 7명이 조난당했습니다.

가운데 52살 최 모 씨 등 3명은 어제 저녁 구조됐고 나머지 4명은 조난 하루 만인 오늘 오전 9시쯤 스스로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총북 과산군 칠보산 계곡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등산객 27명이 2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의 바다에 풍랑특보를 내리고 내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 저지대는 침수피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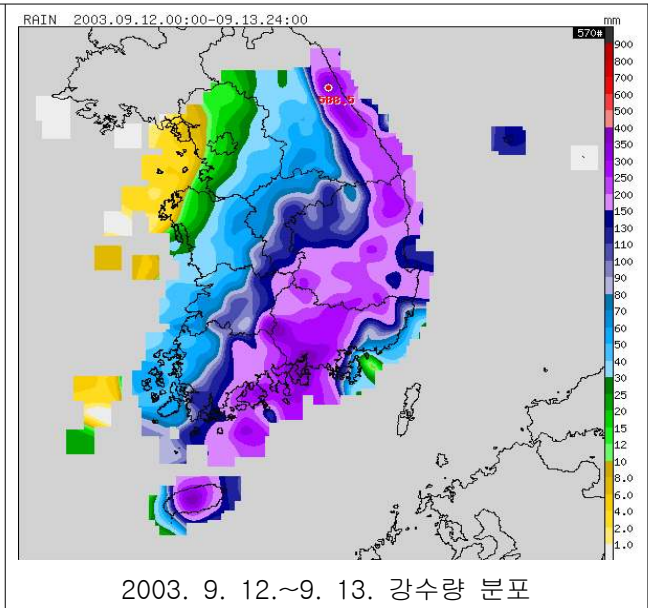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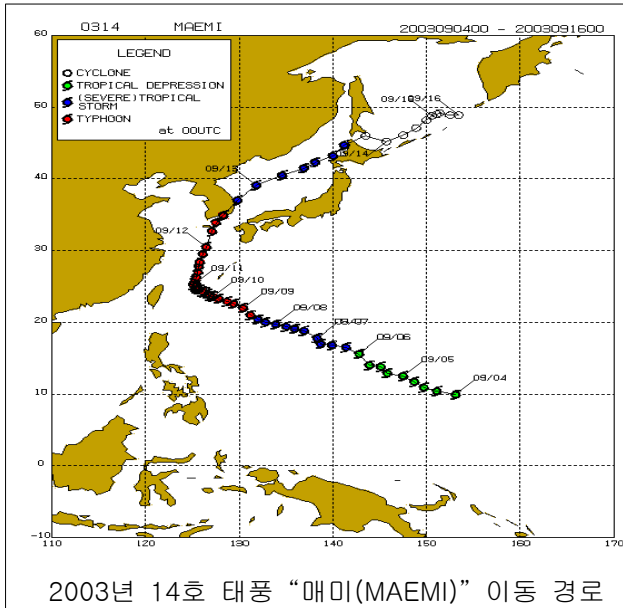
MBC뉴스 이용주입니다.(이용주 기자)

2007. 9. 2. 연합뉴스 기사

2007. 9. 2. MBC 기사

○ 태풍 “매미”(MAEMI, 2003년 9월 12일 ~ 13일)

광 북서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MAEMI)”가 2003년 9월 12일부터 13일사이 한반도를 관통하여 지나면서 부산·경남 전 지역에 강풍과 호우가 기록되었음. 남해에 410.0mm의 일강수량을 기록하며 극값 1위를 기록했고, 통영에서는 최대순간풍속 43.8m/s로 9월 극값 1위를 기록하였음. 부산·경남 전 지역에서 최대순간풍속 30~40m/s, 최대풍속 10~30m/s의 강풍이 불어 전 지역에서 풍속 극값을 기록하였고, 부산·경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음. 또한 창원지역에서는 태풍해일이 발생하여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부산항 대형 크레인 전도 등 4조 2,225억원의 재산피해로 2002년 “루사(RUSA)”의 뒤를 이어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2위를 기록했음.



○ 9월 최대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산	1959.09.17	31.7	1954.09.13	25.5	1956.09.10	23.7	1963.09.13	23.3	2003.09.12	18.3
창원	2003.09.12	24.7	2007.09.16	18.4	2000.09.16	15.3	1999.09.24	15.0	1992.09.24	13.3
부산	1959.09.17	34.7	1956.09.10	30.2	1958.09.06	29.7	1915.09.09	26.2	2003.09.12	26.1
통영	2003.09.12	31.8	1970.09.17	19.3	1971.09.25	18.7	1984.09.03	18.3	1970.09.10	18.3
진주	2003.09.12	18.9	1984.09.01	12.3	1972.09.17	12.0	1997.09.15	11.0	1984.09.02	10.3
거창	2003.09.12	13.8	2000.09.01	11.6	2000.09.16	10.7	2003.09.13	9.1	2000.09.17	9.0
합천	2003.09.12	20.2	2000.09.16	16.3	2005.09.06	9.3	1997.09.15	9.1	1990.09.11	8.5
밀양	2000.09.16	21.2	2003.09.12	17.4	2003.09.13	10.9	2000.09.01	9.6	1999.09.21	9.5
산청	2003.09.12	15.5	2003.09.13	13.0	2004.09.07	10.6	2000.09.16	10.6	1997.09.26	9.5
거제	2000.09.01	15.3	2000.09.16	14.2	2003.09.12	13.1	1980.09.05	11.5	1975.09.20	11.0
남해	2003.09.12	15.6	2000.09.16	13.8	1990.09.19	13.0	1990.09.12	13.0	1979.09.14	13.0

○ 관측 이래 최대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창원	1987.07.16	25.3	2003.09.12	24.7	1987.07.15	22.7	1995.07.23	22.3	1987.08.31	20.7
통영	2003.09.12	31.8	1980.04.06	30.0	1987.07.16	26.7	1980.04.05	25.0	1995.07.23	24.3
진주	2003.09.12	18.9	1987.07.15	17.7	1995.07.23	16.7	1988.04.19	16.7	1977.04.18	16.3
거창	1999.08.03	15.1	1978.04.06	14.5	2000.04.23	13.9	2003.09.12	13.8	1980.05.05	13.5
합천	2003.09.12	20.2	2000.09.16	16.3	1999.08.03	14.3	2008.07.07	13.4	1986.08.28	13.0
밀양	2000.09.16	21.2	2003.09.12	17.4	1986.08.28	16.5	1973.12.28	16.0	1999.08.03	15.4
산청	2006.04.20	15.8	2000.03.24	15.8	2003.09.12	15.5	1981.10.08	15.0	1981.10.22	14.5

○ 9월 최대순간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산	1959.09.17	35.0	1956.09.10	35.0	2003.09.12	33.2	1963.09.13	28.5	1976.09.13	25.1
창원	2003.09.12	38.8	2000.09.16	28.5	2007.09.16	27.3	1997.09.16	25.3	1997.09.15	23.0
부산	2003.09.12	42.7	1959.09.17	42.7	1991.09.27	38.0	1956.09.10	34.4	1958.09.06	33.1
통영	2003.09.12	43.8	1980.09.05	32.0	1984.09.03	30.0	1992.09.24	29.4	2007.09.16	28.2
진주	2003.09.12	31.3	1997.09.26	21.6	1997.09.15	21.2	1998.09.30	19.5	1991.09.27	17.4
거창	2003.09.12	27.0	2003.09.13	17.7	2000.09.16	15.4	2000.09.01	13.1	1997.09.15	13.1
합천	2003.09.12	31.8	2000.09.16	21.3	2005.09.06	17.2	1997.09.26	15.6	1997.09.15	14.9
밀양	2003.09.12	32.4	2000.09.16	29.8	2003.09.13	19.7	2006.09.17	17.2	2005.09.06	17.2
산청	2003.09.12	25.5	2003.09.13	22.0	1997.09.26	18.2	2005.09.13	17.2	2004.09.07	17.0
거제	2003.09.12	32.0	2000.09.16	26.2	1992.09.24	24.4	2003.09.13	22.3	1993.09.17	21.2
남해	2003.09.12	37.2	2007.09.16	23.6	2003.09.13	21.0	2000.09.16	20.1	1992.09.24	18.7

○ 관측 이래 최대순간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산	1987.08.31	36.7	1959.09.17	35.0	1956.09.10	35.0	2003.09.12	33.2	1987.07.15	30.5
창원	2003.09.12	38.8	1995.07.23	38.0	1999.08.03	37.0	1987.08.31	36.4	1987.04.21	35.0
부산	1987.08.31	43.0	2003.09.12	42.7	1959.09.17	42.7	1995.07.23	42.3	1987.07.16	39.5
통영	1995.07.23	46.6	2003.09.12	43.8	1987.07.16	39.6	1994.10.12	39.0	1975.04.05	38.2
진주	1987.07.15	36.4	1986.08.28	33.0	2003.09.12	31.3	1999.08.03	31.2	1987.07.16	29.4
거창	2003.09.12	27.0	1999.08.03	24.3	2002.08.31	21.7	2007.03.28	20.8	2002.01.02	20.2
합천	2003.09.12	31.8	2008.07.07	21.7	2000.09.16	21.3	1995.07.23	21.3	2002.06.02	21.0
밀양	2003.09.12	32.4	2000.09.16	29.8	2002.08.31	23.7	1995.07.23	22.3	1999.08.03	21.4
산청	2006.04.20	29.7	1998.01.24	27.0	2003.09.12	25.5	2003.01.05	25.1	2004.12.05	24.7
거제	2003.09.12	32.0	2006.07.10	27.7	2000.09.16	26.2	1995.07.23	26.0	2002.08.31	25.6
남해	2003.09.12	37.2	2006.07.10	32.0	2002.08.31	30.7	1995.07.23	28.9	1999.08.03	27.3

○ 9월 일강수량(mm)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창원	1998.09.30	227.1	1999.09.20	165.7	2003.09.12	157.0	1992.09.24	140.7	1999.09.10	115.7
통영	1969.09.14	252.4	1973.09.09	174.7	1998.09.30	150.9	2003.09.12	140.5	1981.09.03	117.1
진주	1981.09.03	264.0	2003.09.12	259.5	1998.09.30	201.0	1969.09.14	151.0	1969.09.15	130.7
거창	1998.09.30	210.0	2003.09.12	157.5	1985.09.02	147.5	2007.09.01	135.5	2000.09.14	104.5
합천	1998.09.30	223.5	2003.09.12	186.0	1981.09.03	170.8	2007.09.16	107.0	1991.09.27	106.0
밀양	1998.09.30	195.0	2003.09.12	177.0	1999.09.20	144.0	1984.09.03	142.8	1980.09.11	138.8
산청	1998.09.30	332.5	1981.09.03	251.5	2003.09.12	247.5	1985.09.02	218.7	1992.09.24	189.5
남해	2003.09.12	410	1998.09.30	275.5	1981.09.03	236.4	1981.09.24	192.4	1981.09.02	164.0

○ 관측 이래 일 최다강수량(mm)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진주	1981.09.03	264.0	2003.09.12	259.5	1979.08.25	252.0	2002.08.31	210.0	2007.08.07	207.5
남해	2003.09.12	410.0	1979.08.25	324.5	2001.06.24	303.0	1978.06.18	291.0	1998.09.30	275.5

○ 태풍 “매미(MAEMI)” 재해 관련 기사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납해안 피해 상황

SBS 기사입력 2003-09-13 22:45 | 최종수정 2003-09-13 22:45



동영상 보기

<8뉴스> <앵커> 800여 닢은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고 구겨졌습니다.

가히 그 바람의 세기를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해안가에 있던 대형 크레인과 컨테이너, 선박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계속해서 서풍이 강해집니다. <기자> 무게가 1,000여 가톤 크레인과 매미의 위력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초대형 크레인 여섯기가 추지조각처럼 구겨진 채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자살대 부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2기의 대형 크레인 가운데 2기가 순간 최대풍속 43m의 강풍에 넘어졌고 3기는 계도를 이탈했습니다.

부두에 쌓여 있던 컨테이너도 매미의 강풍에 상당수처럼 쓰러졌습니다.

마구장 조영탑도 휩쓸어 주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은 엇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건물 옥상의 입관칸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모텔하우스 지붕은 그대로 내려 앉았고, 바람에 날린 건축 자재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부서진 차로, 쏟아져 나온 쓰레기로 도심 기능이 마비된 듯 합니다.

공장 지붕은 날아가고 속이 썩혀 드러나 보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쓰러져 지붕을 뚫었습니다.

태풍의 눈이 지나간 경남 남해입니다.

반듯해야 할 양식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불꽃이 처참 부표가 한데 뭉쳐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도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드뭅니다. 적어도 이어 태풍까지. 하지만, 어민들은 복구의 손길을 다 겁니다.

기후적인 강풍과 집채만한 파도는 바닷가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배 한 척은 집을 향해 돌진하다 멈춰선 듯 합니다.

아예 지붕 위에 올라선 배도 있습니다. 집 앞 논 밭에, 그리고 도로 위에 누운 배는 어찌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어항 같은 어구가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배도 파도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동네 포구 앞에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2003. 9. 13. SBSTV

[태풍 '매미' 남부 강타] '매미 광풍'에 길 끊기고 도시 마비

donga.com 기사입력 2003-09-13 18:42 | 최종수정 2003-09-13 18:42

제14호 태풍 '매미'가 들고 온 강풍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부산과 경남 등 남해안 지역에서는 해일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인명 피해=13일 오전 3시경 경남 의령군 가래면 산간지역 양성마을에서 계곡물이 불어 가족 5체가 유실되면서 이 마을 주성후씨(73)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이날 오전 2시경 경남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다전마을에서는 산사태로 뚱대미가 주벽 9채를 덮쳐 이기관씨(67) 부부가 실종됐다.

12일 오후 11시경 경남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에서 강풍으로 가족 6체가 완전히 파손된 우만씨(70)가 숨지고 우씨 가족 등 4명이 매몰됐다.

경북 지역의 경우 출진군 출진읍 신림리 장수북씨(73) 집 인근 야산에서 13일 오전 1시 10분경 산사태가 발생, 추석을 쇠러온 장씨의 손자 은우군(11)이 숨지고 가족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산 피해=12일 오후 8시15분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조전소에서 건조 중이던 3만7000여 미터리터 국적 화물선 마리쿠디엠호가 강풍으로 고정 밧줄이 끊어지면서 피항 중이던 27급 범양호와 충돌, 범양호가 침몰하고 마리쿠디엠호는 좌초됐다.

이 사고 외에 경남지역에서만 선박 11척이 좌초되고 4척이 침몰하는 등 전국에서 86척의 선박이 이번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보았다.

부산에서는 대형 여객선을 꺼조해 지은 해상관광호텔 '펠리스 플로털'이 해일의 영향으로 육상 선착장으로 떠밀려 출라와 45도기량 기온 채 좌초됐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지하 수족관 부산 아쿠아리움도 해일이 덮쳐 큰 피해를 보았다.

울산과 부산에서는 이번 태풍에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많이 깨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특히 많았다.

12일 오후 10시경 순간 최대 풍속 33.2m의 강풍이 불아쳐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아파트와 중구 우정동 선경아파트 등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 500여장이 깨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밑을 지나던 이모씨(50남구 삼산동) 등 주민 100여명이 손과 발 어깨 팔 등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2003. 9. 13. 동아일보기사

부산,피해 증가

YTN 기사입력 2003-09-14 07:45 | 최종수정 2003-09-14 07:45

[앵커멘트]

태풍 매미가 강타한 부산에서는 밤사이에도 사망자와 실종자수가 늘어나는 등 걷거되는 피해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일 피해를 본 바닷가 관광지역과 어촌 등 곳곳에서는 아직도 잔파가 몰아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취재자 연결합니다.

임장혁 기자

[질문]

인명피해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역 사망자는 5명에서 밤새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방이 넘치면서 실종됐던 강서구 산호동 90살 현성을 찾아내지 부부가 해상에서 승선해 발견되는 등 사망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도 6명, 부상자는 20여명이 늘고 있습니다.

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8백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해일 피해를 본 바닷가 관광지와 산업공단, 해안 마을 등을 중심으로 아직도 잔파 공습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녹산공단과 신명 정립공단을 중심으로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사하구 장림동 등 7만 가구 정도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피해는 대부분 복구가 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를 공급은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지역의 산업 피해도 컸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잠정 집계 결과 부산 국가 산업단지내 입주한 업체 107개가 공장 건물에 파손되거나 기계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갈만 부두와 자살대 부두에서 견본된 크레인의 대부분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에 부산항의 하역작업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남아 있는대로 정확한 피해 집계와 함께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03. 9. 14. 연합뉴스기사

출구 막혀 지하노래방 10여명 '수몰'

경향신문 기사입력 2003-09-14 10:54 | 최종수정 2003-09-14 10:54

"아이고 우짜꼬, 우리 아들 우짜꼬..."

13일 밤 9시경 경남 마산시 해운동 상가인 해운프라자 앞, 박모씨(58여)가 당바닥에 주저앉아 낄낄 웃는 채 소방방호복의 배수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형생활을 하는 박씨의 아들(30)은 추석을 맞아 본가를 찾았다가 12일 오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20여시간의 배수작업 끝에 문모씨(20마산시 최성동)와 서모씨(23여 서울시 동대문구)의 시신이 인양되자 아들 지켜보던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문씨의 친구 박모씨(20경남대 1년)는 "해운프라자 지하 3층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불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번을 당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하 6층, 지하 3층 건물인 해운프라자는 12일 밤 만조때 태풍 '매미'가 불고 온 해일 등으로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지하층이 모두 물에 잠겼다. 건물 관리소장 윤모씨(43)에 따르면 당시 지하 1, 2, 3층이 물이 잠기까지 불과 3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오후 8시20분쯤까지 120여명의 손님을 밖으로 대피시켰다"며 "그러나 상황이 워낙 급박해 19개 물이 있는 노래방의 구조작업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음식점(로바다카), 지하 3층 노래방인 이 건물 지하에는 수몰 당시 업주와 손님 등 10여명 이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발생 배수·수색작업이 계속됐다.

현장에 모여든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배수작업이 지연되자 발만 동동 굴렀다. "지하 2층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 조씨가 실종됐다"는 정모씨(54여)는 "장바구니 모자라 배수작업이 늦다니 우리나라가 이런 가난하냐"며 울부짖었다.

유해는 마산소방서장(46)은 "장바구니 배수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지하 2층 식당 현장이 붕괴돼 구조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 3층 노래방 업주인 박모씨(33)의 지갑 등 돈을 당황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의 유류품이 다수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장구조본부에 신고 접수된 실종자는 20여명에 달했다.

상가가 밀려들었던 마산의 변화가인 이 일대는 바다에서 600여 m 떨어진 곳이지만 해안쪽에서 떠밀려온 원목 300여개가 여기저기 날브러져 있어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케 했다.

해안에서 가까운 항포동 지역의 형편은 더욱 나빴다. 항복 6차선 도로 양쪽에는 임시로 치워진 원목 수백개와 컨테이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역시 지하층이 물에 잠긴 지상 19층, 지하 2층의 주상복합건물인 경만시티빌에서도 해군 특수구조대원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됐다. 입주상인 김모씨(43)는 "12일 밤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지하 노래방 손님들이 급히 대피했는데 2명이 미처 못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오동동 해안대에 있는 식당 '가야산 팔곡수'는 해일에 떠밀려온 소형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

마산지역은 태풍으로 분양동부터 해운동까지 7㎞가량의 해안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해안로 주변 상가와 주택의 경우 지하는 모두 물에 잠겼다고 보면 된다"며 "배수작업이 진행되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박영철기자 ycpark@kyunghyang.com>

2003. 9. 14. 경향신문기사